

십대자녀가 지각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Maladjustment and Daily Hassles Perceived by Teen-aged Children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신효식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강사 이경주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 : Hyo Shick, Shi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Kyeong Ju, L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trends of teen-aged children's daily hassles, the difference of maladjustment according to daily hassles level an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variables on maladjustment of teen-aged childre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 of study-related daily hassles were higher than other daily hassles type.
2. Depression, over-anxiousness and delinquenc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daily hassles level.
3. The finding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different variables in according to maladjustment type.

1. 서론

1. 문제제기

인간은 누구나 일상 생활에서 크고 작은 여러가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생활의 변화를 일으킨다. 과거보다도 생활스트레스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대인의 생활에 스트레스가 만연해 있고,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질병이 인간의 복지를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스트레스는 십대 자녀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은 발달적 특징에서 오는 신체적 변화와 정서발달의 불균형, 불안정감, 자아정체감 혼란 등을 경험하게 된다. 더우기 사회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기술, 분노감 조절 등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우울, 불안, 공격성 등의 부적응을 일으키며 자살 충동까지 경험하게 된다.

많은 연구들이 생활속에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십대 자녀의 다양한 부적응, 즉, 우울과 불안(Compas, Slavin, Wagner & Vannatta, 1986; Swearingen & Cohen, 1985), 열등한 학업성적, 비행, 약물사용(Dubow & Tisak, 1989; Rowlison & Felner, 1988) 등과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 시기의 약물남용과 흡연, 음주는 사고능력을 저해하고 학습활동을 방해하며, 정서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십대 자녀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큰 장애요인이 될 뿐 아니라, 무단결석, 청소년 범죄와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기 동안의 부적응 생활 경험은 성인기 동안의 부적응 생활 경험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십대 자녀의 스트레스와 부적응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스트레스적 경험이 십대 자녀의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다. 십대 자녀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십대는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환경적, 발달적 변화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스트레스 효과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시기이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빈약하며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Rutter, 1983). 둘째, 일반가정의 자녀가 아닌 주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응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오경자, 이해련, 1990; 홍강의, 홍경자, 1983). 그러나,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가정의 자녀도 스트레스 국면에서 다양한 부적응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이들의 부적응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일상적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에 따라 부적응 양상이 각기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여 십대자녀가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과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부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고,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일상적 스트레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십대자녀의 적응을 돕고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십대 자녀가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십대 자녀의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부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십대 자녀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일상적 스트레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십대 자녀의 일상적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자원을 요구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적 복지를 위협하는 인간과 환경간의 특정한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이러한 스트레스는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십대가 경험하는 긴장은 어느 시기보다도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가질수가 있다. 왜냐면, 십대에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변화 등이 일어나는 시기인 동시에 개인의 독립과 책임이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많은 관련 연구(김창기, 1992; 박명재, 1993; Eme, Maisiak & Goodale, 1979; House, Durfee & Bryan, 1979)에서도 외모, 학업성적, 진학문제, 여가시간 활용문제, 부모와의 관계, 성과 관련된 문제 및 또래관계 문제 등이 십대 자녀의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십대에는 스트레스적 생활사건 발생의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갖지 못하여 심한 경우는 자녀에게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한편, 자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유형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지만, Lazarus와 Cohen(1977)은 과중한 역할분담, 부모와의 언쟁과 같은 날마다의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의 이혼, 실직, 생명을 위협하는 병과 같은 소수인에게 영향을 주는 주요한 생활 사건적 스트레스, 자연재해, 추방등 다수인에게 영향을 주는 통제할 수 없는 사건적 스트레스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많은 연구자들이(Brooks-Gunn, 1991; Lazarus & Folkman, 1991; Petersen, Sarigiani & Kennedy, 1991) 주요한 생활사건보다도 일상적 스트레스가 개인의 부적응을 예측하는데 설명력이 높다고 지적한 바, 십대가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2. 부적응

인간의 정서상태나 행동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정상인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극단적인 정서나 행동양상을 보일 수 있다. 부적응이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 벗어난 행동을 말하는데, 류왕효(1990)는 여러 학자들의 개념을 종합하여 부적응아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첫째,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환경하에서도 비정상적인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며, 둘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간 지속되는 고착행동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셋째, 사회문화적 기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보이며, 넷째, 외형적으로 다른 장애의 증상과 복합적인 양상을 띠었다고 하였다.

부적응 유형은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러 행동이 동시에 나타나며, 때로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상이하게 구분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Donovan과 Jessor(1985)는 청소년과 성인 초기를 대상으로 이들의 부적응 유형을 음주, 불법적인 약물이용, 비행행동, 성행동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임상이나 연구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Achenbach와 Edelbrock(1983)의 아동행동목록(Child Behavior Checklist: CBCL)은 정신병, 우울, 사회적 위축, 강박성, 신체적 증상, 의사소통 장애, 과활동성, 공격성, 비행성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CBCL분류에 기초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부적응 연구가 최근에 들어서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오경자, 이혜련, 1990;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1991; 한미현, 유안진, 1996). 오경자, 이혜련(1990)은 한국 청소년의 12세-16세 남아의 행동을 공격성, 정신병, 불안, 비행,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과잉활동, 미성숙, 정신분열성,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BCL자료와 오경자, 이혜련(1990)의 분류에 기초를 두고 십대 자녀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적응을 사회적 위축, 우울, 불안, 과활동성, 공격성, 비행성의 6개 요인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아동 및 십대 자녀의 부적응에 관련된 변인을 선

행연구를 통하여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라 부적응 유형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공격성, 과잉활동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았으나, 불안, 우울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홍강의, 홍경자, 1985; Colten, Gore, & Aseltine, 1991)고 하였다. 상류계층의 아동이 가장 낮은 부적응 점수를 보였고(Achenbach, 1978), 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의 직업이 노무직에 종사할수록,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아동의 부적응이 남녀 모두에게 높게 나타났다(한미현, 유안진, 1996; 홍강의, 홍경자, 1985). 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취업과 같은 어머니와 관련된 변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한미현, 유안진, 1996). 또한, 부모의 결혼생활이 불만족할수록 자녀에게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고(Forehand, Lautenschlager, Faust & Grazino, 1986; Gove & Crutchfield, 1982; Patterson, 1980; Sorrells, 1977), 양육태도가 일관성이 없고 처벌의 사용이 빈번하며(Patterson & Dishion, 1985; Steinberg, 1987),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김경숙, 1993) 부적응 점수가 높았다고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자녀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자녀의 성별, 소득, 부모의 학력, 직업, 부모의 결혼만족도, 양육태도 등을 들 수 있는데, 주로 부적응 영역을 세분화시키지 않고 분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적응의 하위 유형별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많으므로 십대 자녀의 부적응 양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십대 자녀를 대상으로 부적응의 하위 유형을 세분화시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요구나 위협으로 상황을 평가하거나, 적절한 대처반응을 갖지 못했을 때 발생하게 된다. 만일 스트레스가 제때에 해소되지 않고 누적되면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심한 경우는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에 스트레스적 생활사건과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증상, 신체적 증상간의 관련성 연구가 많이 행해진 사실을 통하여 이를 지지해주고 있다. 즉, 생활변화의 노출이 증가됨에 따라 더욱 더 많은 형태의 심리적 분열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연구는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동과 십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몇 편에 불과하다.

한상엽, 김종술, 염택구(1974)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사건은 질병을 촉진시키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일이 많을수록 정신건강이나 행동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illings, Gronkite와 Moos(1983)는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우울증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였고, 일상적 스트레스가 그들 자신과 가족원의 신체적 질병과 관련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몇몇 연구(Baldwin & Revenson, 1986; Horwitz, 1984; Kelvin & Jarret, 1985)에서 가정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이나 십대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Compas, Howell과 Phares(1989)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10-15세 아동의 내적, 외적 부적응과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9개월 간격으로 조사한 결과, 행동적응에 스트레스가 위협요소임을 제시하였다. 한미현, 유안진(1996)도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아동에게서 부적응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여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동의 스트레스가 부적응을 예언해주는 중요한 변수라고 밝혔다.

상기의 결과처럼 스트레스와 부적응간에는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일상적 스트레스 유형별로 부적응 양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이들 상호관계에 대한 검증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한 4개 중학교 남녀 1,2

학년 500명과 그들의 어머니로 하였다. 대상을 선정할 때 지역성을 고려하여 4개구별로 고루 분포되도록 하였으며, 이들중 불성실한 응답 및 무응답의 경우를 제외한 434명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 많았으며, 소득은 100-199만원 정도, 부의 직업은 사무직과 자영업공업 집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중류층 가정의 자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34)

변 인	구 분	N(%)
성 별	남	225(51.8)
	여	209(48.2)
부의 학력	중졸 이하	83(19.1)
	고졸	211(40.6)
	대졸이상	140(32.3)
모의 학력	중졸 이하	163(37.6)
	고졸	221(50.9)
	대졸이상	50(11.5)
소 득	99만원 이하	76(17.5)
	100-199만원	231(53.2)
	200만원 이상	127(29.2)
부의 직업	무직, 단순노무직	44(10.1)
	피고용기능공	95(21.9)
	자영업공업	102(23.5)
	사무직	125(28.8)
	관리 전문직	68(15.7)
모의 직업	무	294(67.7)
	유	140(32.3)
모의 결혼만족도	불만족	56(12.9)
	보통	118(27.2)
	만족	260(59.9)

2. 측정도구

스트레스 척도는 류수영(1993), 이유미(1994), 한미현, 유안진(1996)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가족관련 영역(5), 친구관련 영역(5), 학업관련 영역(5), 교사관련 영역(5), 신체관련 영역(3)의 총 24문항을 사용하였

다. 스트레스 수준은 Likert형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는 가족관련이 .71, 친구관련이 .73, 학업관련이 .70, 교사관련이 .66, 신체관련이 .63이다.

부적응 척도는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제작한 Child Behavior Checklist(CBCL)를 근거로 오경자, 이해련(1990), 홍경자(1985)등의 척도를 참고하여 십대 자녀에게 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적응 유형을 사회적 위축, 우울, 과잉불안, 공격성, 비행성, 과잉활동성 등을 선정하여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부적응 표출정도에 따라 3점 척도(0점-2점)로 평정한다. 점수 정도가 높을수록 부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는 사회적 위축이 .66, 우울 .76, 과잉불안 .60, 공격성 .60, 비행 .69, 과활동성 .64이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자료분석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문항구성 적합여부와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6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1996년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실시하여 43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스트레스 질문지는 교사가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학생이 응답하게 하였고, 자녀의 행동평가에 대한 어머니용 질문지는 학생을 통해 가정으로 전달하여 응답하게 한 뒤 회수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 Duncan검증,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십대 자녀가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십대자녀가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의 일

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영역별로 점수를 산출해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와 같이 일상적 스트레스의 전체 점수가 평균 3.69점으로 중간점보다 약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다음은 교사관련 영역, 가족관련 영역, 친구관련 영역, 신체관련 영역 순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학업관련, 교사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점을 볼때, 우리나라 십대자녀는 학업에 과중한 부담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일상적 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 점수

영역	평균(표준편차)
가족관련 스트레스	3.68 (0.67)
교사관련 스트레스	3.75 (0.66)
친구관련 스트레스	3.55 (0.68)
학업관련 스트레스	3.99 (0.53)
신체관련 스트레스	3.24 (0.88)
전체 스트레스	3.69 (0.44)

2.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부적응의 차이

십대자녀가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에 따라서 부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표 2>에 나타난 일상적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근거로 하였다. $X < M - SD/2$ 인 경우는 하집단으로, $M - SD/2 < X < M + SD/2$ 인 경우는 중집단, $X > M + SD/2$ 인 경우는 상집단으로 구분한 후, 변량분석과 Duncan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우울, 과잉불안, 비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과잉불안, 비행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부적응이 높아진다는 Compas, Howell, Phares, Williams와 Guinta (1989), 한미현, 유안진(1996) 연구와 일치하고 있으며, 사춘기에 진입한 중학생에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함을 제시해주

고 있다.

<표 3>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부적응의 차이

부적응	일상적 스트레스		
	상(N=151) M (SD)	중(N=175) M (SD)	하(N=108) M (SD)
사회적 위축 F값 Duncan	1.23(1.59)	0.90(1.09) 2.11	0.89(1.21)
우울 F값 Duncan	1.49(1.54) a	1.00(1.11) 5.85** b	0.85(0.97) b
과잉불안 F값 Duncan	1.74(1.92) a	1.10(1.29) 6.71** b	0.95(1.23) b
과활동성 F값 Duncan	2.73(1.68)	2.33(1.53) 2.69	2.11(1.64)
공격성 F값 Duncan	0.94(1.30)	0.90(1.20) 1.69	0.62(1.11)
비행 F값 Duncan	2.58(2.01) a	2.03(1.55) 5.77** b	1.63(1.42) b

** p < .01

3.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일상적 스트레스의 상대적 영향력

십대자녀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보기 위하여 부적응 하위유형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의 변인에 대해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회귀분석에 이용된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자녀의 성별, 부모의 학력, 소득, 모의 결혼만족도를 포함시켰으며, 이들 변인과 일상적 스트레스의 하위 유형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1.799-2.065), 잔차간에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일상적 스트레스의 상대적 영향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F	R ²
사회적 위축	부의 학력	-.23	-.13***	8.76***	.06
	모의 결혼만족도	-.21	-.12**		
	신체관련스트레스	.05	.11*		
우울	부의 학력	-.18	-.11**	5.64***	.04
	친구관련스트레스	.04	.10*		
	모의 결혼만족도	-.16	-.10*		
과잉불안	모의 결혼만족도	-.34	-.17***	10.63***	.07
	신체관련스트레스	.08	.15***		
	가족관련스트레스	.04	.10*		
과활동성	모의 결혼만족도	-.38	-.17***	9.43***	.06
	신체관련스트레스	.07	.13**		
	가족관련스트레스	.04	.09*		
공격성	가족관련스트레스	.04	.10*	4.13**	.04
	부의 학력	-.16	-.09*		
	모의 결혼만족도	-.14	-.08		
비행	모의 결혼만족도	-.46	-.20***	11.24***	.09
	가족관련스트레스	.08	.16***		
	모의 학력	-.31	-.12**		
	신체관련스트레스	.04	.07		

* p < .05, ** p < .01, *** p < .001

〈표 4〉와 같이 부적응의 하위유형에 따라 의미있는 관련변인들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의 학력, 모의 결혼만족도, 신체관련 스트레스가 나타났다. 신체관련 스트레스 변인은 사회적 위축에 정적인 영향을, 나머지 변인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위축을 6% 설명해 주었다. 우울은 부의 학력, 친구관련 스트레스, 모의 결혼만족도가 나타났다. 친구관련 스트레스는 정적인 영향을, 나머지 변인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을 4% 설명해 주었다. 과잉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의 결혼만족도, 신체관련 스트레스, 가족관련 스트레스였다. 모의 결혼만족도는 과잉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나머지 변인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들 변인은 과잉불안을 7% 설명해 주었다. 과활동성은 모의 결혼만족도, 신체관련 스트레스, 가족관련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모의 결혼만족도는 과활동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

치며, 나머지 변인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과활동성을 6% 설명해 주었다.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관련 스트레스, 부의 학력이 나타났다. 가족관련 스트레스는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부의 학력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들 변인은 공격성을 4% 설명해 주었다. 비행은 모의 결혼만족도, 가족관련 스트레스, 모의 학력이 나타났다. 가족관련 스트레스는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나머지 변인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들 변인은 비행을 9% 설명해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적응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신체관련, 가족관련, 친구관련 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적응에 관련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둘째, 모의 결혼만족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학력이 부적응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선택한 변인들의 설명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변수들을 포함시킨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십대자녀가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과 일상적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른 부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일상적 스트레스가 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춘기에 진입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십대자녀가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학업관련, 교사관련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일상적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우울, 과잉불안, 비행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세째,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하위유형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신체관련, 가족관련, 친구관련 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적응에 관련되어 있으며, 모의 결혼만족도, 부모의 학력도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신체관련 스트레스가 십대자녀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하였다. 이는 중학교 시기가 사춘기 시작과 함께 동성보다는 이성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때이므로 그 어느 시기보다도 신체의 변화와 자신의 외모에 몰두하게 된다. 미에 대한 기대수준이 자신과 부합되지 않을 때 갖게되는 열등감, 좌절감 등으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십대들의 발달 특성을 잘 인식하여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함과 동시에 정서적 성숙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가족관련 스트레스와 친구관련 스트레스가 부적응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십대는 또래와의 동조행위가 증가되어가는 시기이며, 가족 또한 자녀의 발달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주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인관계 훈련이 필요하고 가족 간의 적절한 애정, 친밀감 등의 지지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세째, 모의 결혼만족도는 자녀에게 부적응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되었다. 즉, 행복하지 못한 부부관계에서 기인하는 가정내의 갈등과 지나친 긴장이 자녀에게 사회적 위축, 우울, 과잉불안, 비행 등의 정서적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화목한 관계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자녀의 행동적응을 위한 환경을 제공해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본 연구가 지닌 다음의 제한점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한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였으므로 자녀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고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적응 척도 문항은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다소 극단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가정 자녀의 부적응을 정확하게 평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세째, 본 연구는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설명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은 개인적, 환경적 변인들까지 포함하는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십대자녀가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는 스트레스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부적응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여 심리적 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1) 김경숙(1993), 유아의 행동문제와 어머니 양육태도,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창기(1992),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요인 및 적응방법에 관한 고찰,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논문.
- 3) 류수영(1993), 국민학교 고학년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류왕효(1990), 유치원 아동에 대한 Walker의 문제 행동검목표의 타당성 분석, 특수교육연구, 17, 127-150.
 - 5) 박명재(1993), 중,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유형과 강도, 순천향대학교 지역사회개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오경자, 이혜련(1990), 한국 아동 청소년의 문제 행동 증후군 연구 1: 4-5세, 6-11세, 12-16세 남아 CBCL자료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33-55.
 - 7)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1991), 문제행동 양상에서의 성차이,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1), 125-137.
 - 8) 이유미(1994),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인지적 평가에 관한 연구-광주직할시 중고등 학생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9) 한상엽, 김종술, 염택구(1974), 청소년기 외래 환자의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3, 408-411.
 - 10) 한미현, 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11) 홍강의, 홍경자(1983), 부모 설문에 의한 아동의 행동문제 분석: 예비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2(3), 366-374.
 - 12) 홍강의, 홍경자(1985),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문제 연구(I): 부모 설문에 의한 역학적 조사, 정신의학보, 9(2), 48-63.
 - 13) 홍경자(1985),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양상 도형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14) Achenbach, T.M.(1978), The child behavior profile: I, Boys aged 6-11,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3), 478-488.
 - 15) Achenbach, T.M. & Edelbrock, C.(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 16) Baldwin, C.M. & Revenson, T.A.(1986), Vulnerability to Economic Str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161-175.
 - 17) Brooks-Gunn, J.(1991), How stressful is the transition to adolescence for girls?, In M.E. Colten & S. Gore(Eds.), *Adolescent stress: Causes and consequences*, 131-149, New York: Aldine de Gruyter.
 - 18) Colten, M.E., Gore, S., & Aseltine, R.(1991), The patterning of distress and disorder in a community sample of high school aged youth, In M.E. Colten & S. Gore(Eds.), *Adolescent stress: Causes and consequences*, 157-180, N.Y.: Aldine de Gruyter.
 - 19) Compas, B.E., Howell, D.C., & Phares, V.(1989), Perspectives on child behavior problems: Comparisons of children's self-reports with parent and teacher repor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 68-71.
 - 20) Compas, B.E., Howell, D.C., Phares, V., Williams, R.A., & Guinta, C.T.(1989), Risk factors for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young adolescents: A prospective analysis of adolescent and parental stress and sympto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732-740.
 - 21) Compas, B.E., Slavin, L.A., Wagner, B.M., Vannatta, K.(1986), Relationship of life events and social support with psychological dysfunc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5, 205-221.
 - 22) Donovan, J.E. & Jessor, R.(1985), Structure of Problem Behavior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6), 890-904.
 - 23) Dubow, E.F., & Tisak, J.(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24) Forehand, R., Lautenschlager, G.J., Faust, J., &

- Grazino, W.G.(1986), Parent perceptions and parent-child interactions in clinic-referred children: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maternal depressive mood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4, 73-75.
- 25) Gove, W.R., & Crutchfield, R.D.(1982), The family and juvenile delinquency, *Sociological Quarterly*, 23, 301-319.
- 26) Horwitz, A.V.(1984), The economy and social path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0, 95-119.
- 27) Kelvin, P. & Jarret, J.E.(1985), *Unemployment: Its social psychological effects*, New York: Cambridge Uni Press.
- 28) Lazarus, R.S. & Cohen, J.B.(1977), Environmental stress, In L. Altman & F. Wohlwill (Eds.), *Human behavior and environment: Current Theory and Research*, 2, 89-127, N.Y.: Plenum.
- 29) Lazarus, R.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30) Patterson, G.R.(1980), Mothers: The unacknowledged victim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5(5, serial No. 186).
- 31) Patterson, G.R., & Dishion, T.J.(1985), Contributions of families and peers to delinquency, *Criminology*, 23, 63-79.
- 32) Petersen, A.C., Sarigiani, P.A., & Kennedy, R.E. (1991), Adolescent depression: Why more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247-271.
- 33) Rowlison, R.T., & Felner, R.D.(1988), Major life events, hassles,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Confounding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and adjustment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432-444.
- 34) Rutter, M.(1983),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Some issues and some questions. In N. Garnezy &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pp.1-41), New York: McGraw-Hill.
- 35) Sorrels, J.M.(1977), Kids who Kill, *Crime and delinquency*, 23, 312-320.
- 36) Steinberg, L.(1987), Familial factors in delinquency: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 235-268.
- 37) Swearingen, E.M., & Cohen, L.H.(1985), Life event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prospective study of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45-1054.